

主婦의 要求賃金 決定要因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Reservation Wage of Housewife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 사 : 소 연 경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en's University

Lecturer : Youn Kyung So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 문 숙 재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en's University

Professor : Sook Jae Moon

目 次

I. 緒 論

- A. 問題의 提起
- B. 研究의 目的 및 制限點

II. 理論의 背景

- A. 要求賃金
- B. 家事勞動의 市場化
 - 1. 家事勞動의 市場化
 - 2. 家事勞動의 市場化와 要求賃金
- C. 要求賃金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 1. 經濟人口學的 要因
 - 2. 社會文化的 要因
 - 3. 家事勞動의 市場化 要因

III. 研究方法

- A. 研究問題의 設立 및 假說
- B. 調査對象者의 一般의 特性

IV. 分析結果 및 解釋

- A. 經濟人口學的 및 社會文化的 變數와 要求賃金
- B. 家事勞動의 市場化 變數와 要求賃金
- C. 要求賃金에 대한 回歸分析
- D. 因果模型의 檢證

V. 結論 및 提言

- A. 結 論
 - B. 提 言
- 참고문헌

= ABSTRACT =

This study attempts to apply its result to decision whether housewives are in the labor market or not by investigating the level of reservation wage of them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n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s by identifying, on the basis of theoretical models, the factors that influence reservation wage, and to predict the future state of female

employment.

1) The level of reservation wage of housewiv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husband's income, household asset, housewife's education level, housewife's age, number of children, division of husband in household labor, and by three marketization of housework.

2) The variables which affected reservation wage of housewife independently had influence on it in the following order : Husband's income, education level, age affect positively reservation wage of housewife, and a negative relation has been found between division of husband, level of commodity substitution and reservation wage of housewife.

3) Husband's income, housewife's education level, housewife's age, division of husband in household labor, level of commodity substitution give direct effects on reservation wage of housewife.

Education level, age, number of children and family type influenced reservation wage of housewife through level of commodity substitution indirectly.

I. 緒 論

A. 問題의 提起

산업구조가 高度化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취업기회도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1962년 부터 시작된 産業化 과정에서 여성인력의 높은 고용흡수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뚜렷이 증가하여 1985년도에는 미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상회하고 있다(경제기획원 1960, 1970, 1980, 1986; 한국여성개발원 1986).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여성노동력이 量的으로는 크게 팽창했지만 고 기술·고학력 기혼여성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여 質적으로는 낙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 유가 노동력 수요의 측면에서는 고용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노동력 공급의 측면에서 볼때는 우리나라 주부들은 가사노동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그 가치를 보다 크게 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家事勞動의 價値나 는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은 필요한 분석으로 사료된다.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단위는 개인이라고

보다는 가정이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통념적으로 그들의 일차적 책임은 가사노동이므로 취업 결정시 가사노동이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된다. 가사노동은 가족원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가족원의 노동력을 재생산시킴으로써 가정의 기능유지를 가능하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人間生活의 質을 향상시키는 필수 불가결한 노동이다. 이러한 가사노동은 산업자본주의의 도래에 따른 社會經濟的 環境의 변화로 인하여 그 機能과 形態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産業化 以後 生産의 장소와 住居의 장소가 분리되고 生産機能이 家庭外的인 영리적 부문으로 이전됨에 따라 가정은 주로 소비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상품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편의식품·의식산업등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가정에서는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家事勞動을 통해 생산하는 대신 시장을 중심으로, 가정용 기구나 고용인의 노동력 또는 상품구입으로 代替함으로써 시장에 의존하는 가정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문숙재 1982).

이와같이 농업경제시대에 가능했던 자급자족 가정의 형태가 시장의존 가정의 형태로 이전되어가는 현상을 家事勞動의 市場化라고 한다.

가사노동의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주부는 가사노동이 경감됨으로써 그 책임으로부터 어느정도는 자유로와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그들의 가사노동의 화폐가치인 要求賃金은 낮아지게 된다. 要求賃金이란 비취업주부들로 하여금 가사노동보다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 그리고 취업주부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남아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Zick와 Bryant 1983)하는 것으로서 주부의 요구임금은 그들의 일차적 책임인 家事勞動의 價値를 반영하게 된다.

주부들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는 현대 가정생활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측면이며, 주부의 노동시장 참여 결정시 要求賃금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논문에서 주부의 要求賃金水準을 분석하는 것은, 그들이 가사노동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실제적으로 適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로는 家事勞動의 價値에 관한 연구와 주부의 노동공급에 관한 연구가 있다. 가사노동의 가치에 관한 연구에서는 시장비용방법과 기회비용방법등으로 그 가치를 화폐금액으로 측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서 주부의 노동공급에 대한 연구에서는 市場賃金과 要求賃金과의 비교를 통해 취업을 결정한다고 이론을 제시하고 시장임금, 비근로소득, 교육수준등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같은 두가지 주류의 연구를 하나로 통합시켜 주부들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要求賃金이라는 실제적인 가치로 측정하고 이에 미치는 영향변인을 파악함으로써 그 결과를 취업결정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B. 研究의 目的 및 制限點

본 연구는 勞動供給에 관한 諸理論을 근거로 하여 도시거주 주부의 要求賃金水準을 파악하고 要求賃金과 관련있는 변수를 조사하여 주부가 가사노동을 통해 家計生産을 늘리는 것과 市場勞動을 통해 화

폐수입을 늘리는 것 중 어느편이 가계의 효용수준을 높일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거시적으로는 주부의 要求賃金水準을 파악함으로써 얼마만큼의 고용인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교육·임금등의 정책방안을 어느 수준으로 수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주부의 요구임금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概念的 模型을 설정하고 설정한 모형을 바탕으로 주부의 要求賃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經濟人口學的, 社會文化的, 家事勞動의 市場化라는 세측면에서 고찰한다. 또한 이러한 변수들이 주부의 要求賃金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하고 가설적으로 설정된 經路模型이 因果關係를 갖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같이 연구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범위를 한정하므로 이것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주부가 자신의 잠재시장임금과 가정시간의 화폐가치를 비교하여 취업을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要求賃금이 市場賃金보다 반드시 높지는 않지만 시장의 임금이 적어서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와 勞動市場의 제약요인으로 고용기회가 없어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주부가 취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때는 시장임금과 요구임금을 비교하여 선택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요구임금만을 분석하고 시장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주부취업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셋째, 조사대상자를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로 한정했으며, 월소득 3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과 취업주부의 직업이 자영업자, 가족종사자는 제외했다. 저소득층은 경제적 필요성으로 언제든지 노동시장에 진입할 태세를 취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나 가족종사자는 가족일을 도우는 형태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시장임금과 요구임금을 비교하여 선택한 취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II. 理論的 背景

A. 要求賃金

요구임금이란 주부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생산적 가치를 화폐화한 개념이므로 要求賃金에 대한 論議를 위해서는 가사노동이 갖는 生産的 意味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우선 가사노동의 생산성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Becker(1976, pp89-114)를 중심으로한 시카고 학파의 경제학자들은 가정에서 구매한 상품이 소비되기 까지에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전통적인 신고전학파의 消費行動理論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Becker는 1965년에 발표한 '시간배분이론'이라는 논문에서 가계는 소비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구입한 財貨에 人的資本과 시간을 투입하여 最終消費財를 생산함으로써 궁극적인 만족을 얻는다고 주장하여 가사노동이 生産活動임을 밝히고 있다.

예를들어 가정에서는 음식을 소비함으로써 그 자체에서 만족감을 얻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부터 건강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시장에서 구입하는 여러가지 物的財貨에 가족원의 시간을 투입하여 다음과 같은 家計生産을 통해 건강을 만들어 낸다;

$$Z_i = f_i(X_{i1}, X_{i2}, \dots, X_{im}, t_i)$$

위의 가계생산함수에서 Z_i 를 건강이라는 最終財貨라고 할때 $X_{i1}, X_{i2}, \dots, X_{im}$ 은 시장에서 구입하는 物的財貨로 예를들면 식품, 오븐, 약 등이 되며 t_i 는 건강이라는 재화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말한다. 즉 가계는 시장에서 구매한 재화와 서어비스에서 직접 효용을 얻는다고 보다는 가사노동을 통한 生産過程을 거쳐 만든 最終消費賞品에서 효용을 얻는

다. 따라서 각 가정이 가계생산과정을 통해 생산요소들을 조합하는 방법에 따라 건강이 다를 수 있다. 그의 이론은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학적 시각을 변화시킴으로써 가사노동이 生産활동이라는 견해를 지지해 주고 있다.

Becker의 이론을 기초로하여 Ehrenberg와 Smith(1982 pp182-190)도 소비패턴 및 勞動供給과 같은 중요한 결정들이 가정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가족이 소비하는 많은 재화들이 가정에서 생산된다고 보았다. 그가 제시한 가계생산모델도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비와 생산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즉 음식을 만들기 위한 각종 재료 및 연료는 그것을 조리하는 주부의 시간 및 노력과 결합되어야 음식이 될 수 있듯이, 가계를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최종소비상품의 生産單位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때 가정에서는 가족원들의 기호에 알맞게 변형시키는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最終消費財로부터 효용을 얻게되며 또한 변형된 재화를 통해서 가족원들의 욕구가 최대한 충족되도록 가정관리등의 서어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가사노동은 생산적인 노동임에 틀림이 없다.

가사노동이 生産활동임을 인식하면서 家事勞動의 經濟的 價値에 대한 평가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가사노동의 화폐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投入面에서의 측정방법과 産出面에서의 측정방법이 있다. 투입면에서의 측정¹⁾은 가정에서 財貨와 用役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노동력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고 산출면에서의 측정²⁾은 가정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가격을 계산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주제인 要求賃金은 전자의 방법중에 기회비용의 방법을 적용하여 가사노동의 화폐가치를 평가한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기회비용방법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기회비용방법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주부가 有給

주 1: 투입면에서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계산하는 자세한 설명은 Walker와 Gauger(1973), Hawrylyshyn(1976), Adler와 Hawrylyshyn(1978), Kendrick(1979), Murphy(1979), Zick와 Bryant(1983), 문숙재, 정영금(1984), 김애실(1985)등을 참조.

주 2: 산출면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계산하는 자세한 설명은 Goldschmidt-Clermont(1983), Birens와 Volker(1986)을 참조.

勞動에 참여함으로써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소득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어느 한 행위의 기회비용이란 그 행위를 선택함으로써 놓쳐버린 다른 행위의 가치를 평가한 비용으로써, 가사노동의 기회비용은 주부가 생산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화폐소득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한 개인의 가사노동에 소비한 시간의 限界價値는 그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임금률과 동일하며 각 노동에서의 生産性이 한계적으로 같아지도록 시간을 배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Firebaugh와 Deacon 1979; pp57-72). 이것은 가계생산의 한계가치가 시장임금율보다 크면 가사노동에 시간을 배분하게 되고 가계생산의 한계가치가 시장임금을 보다 작으면 市場勞動에 시간을 배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주부가 가사노동시간과 시장노동시간의 생산성을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노동시장 여건으로 인해 취업하고 싶어도 고용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선택에 의한 의사결정이 아닌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주부들의 가사노동의 기회비용은 0이 된다.

둘째, 동일한 가사노동의 가치가 그들의 市場賃金の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르게 평가된다는 것이다. 즉, 높은 수준의 학력과 숙련된 기술을 가진 주부와 그렇지 못한 주부의 기회비용은 차이가 크게 나는데, 전자의 주부가 가사노동에서의 생산성이 그만큼 더 높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Ferber와 Birnbaum, 1980; Hefferan, 1982).

셋째, 기회비용방법은 全業主婦들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게 한다. 왜냐하면 주부가 집에서 가사노동을 수행하기로 한 결정은 그녀의 가사노동의 가치가 그녀가 노동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잠재 시장 임금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이다. 같은 견지에서 '勞動市場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가사노동의 가치는 과대평가 된다. 왜냐하면 그녀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녀의 시장임금이 가사노동의 가치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이다(Ferber와 Greene 1983; Zick와 Bryant 1983).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Firebaugh와 Deacon

(1979 pp57-71)은 機會費用方法이 가사노동에 최상의 가치를 주는 방법이라고 하였으며, Hawrylyshyn (1976)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중 기회비용접근법이 理論的, 分析的 접근을 고려한 가장 정교한 방법이므로 최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첫번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로 기회비용방법으로 가사노동의 화폐가치를 산정할 때는 근로자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취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잠재소득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추정된 결과도 편기(bias)를 일으키게 됨으로써 전업주부들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게 된다(Heckman 1979).

두번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Hawrylyshyn (1976)은 기회비용이 다른 두 주부에 의해 수행된 동일한 가사노동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는 모순은 '집에 있는 것'(being at home)의 가치와 잠재소득의 가치를 갖게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것은 家庭產出物의 가치는 財貨와 用役의 가치가 아니라 주부가 집에 있다는 것에 대한 가치 또는 주부업에 대한 총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요구임금은 비취업주부로 하여금 가사노동보다는 勞動市場에 진입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 그리고 취업주부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남아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Zick와 Bryant 1983). 따라서 요구임금으로 가사노동의 화폐가치를 측정하게 되면 기회비용이 다른 두 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의 차이를 줄일 수 있고, 또한 全業主婦들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그리고 취업주부들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게 되는 잘못을 수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노동공급 행동에 대한 각 개인의 차이는 市場賃金の 차이에서 오기도 하며 재화와 비시장활동 시간(가사노동 시간)에 대한 기호의 차이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시장임금은 노동시장에서 객관적으로 결정되며 기호는 재화와 가사노동 시간 사이의 主觀的인 代替率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여기에서 주관적인 대체율이란 가정에서 보내는 각 개인의 時間的 價値를 의미하며 이것이 要求賃金 또는 留保賃金(reservation wage or shadow wage)이

된다(Ben-Porath 1973).

주부의 요구임금은 그들의 가사노동의 화폐가치를 반영한 개념으로 경제활동 참가현상을 다룰 때 시장임금과의 비교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주부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시장임금과 요구임금 사이의 비교에 의해 일어나며 어떤 지역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40%라는 것은 그 지역 여성들의 40%가 그들의 市場賃金이 要求賃金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Ben-Porath 1973).

Gronau(1973a, 1973b)도 가정주부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그녀의 잠재시장임금과 노동시장에 노동을 공급하지 않을 때의 그녀의 가정시간의 가치 사이의 비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Ben-Porath가 제시한 理論을 발전시켰다. 그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주부들의 市場賃金과 要求賃金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고 있다. 교육수준과 연령이 같은 여자들은 같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요구임금도 같다고 가정하여 노동시장 참여를 단지 시장임금의 변동으로만 파악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의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가사노동에서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즉 가사노동의 가치가 낮아 취업하고 있는 주부들의 경우 이들의 평균임금은 전체 주부들의 가사노동의 평균가치를 과소평가하게 한다.

둘째는 시장노동에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 시장임금이 높은 취업주부들인 경우 이들의 평균임금은 전체주부들의 가사노동의 평균가치를 과대평가하게 한다. 그는 1960년도의 미국 자료를 이용하여 첫번째 가정하에서는 전체 주부의 가사노동의 평균가치는 취업주부의 평균임금을 약 20%정도 초과하며, 두번째의 가정하에서는 전체 주부의 가사노동의 평균가치는 취업주부의 평균임금에 약 20~30%정도 미달된다고 밝혔다.

1974년에 Heckman은 “요구임금, 시장임금과 노동공급”에 관한 논문에서 Gronau의 연구보다 폭넓은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했다. 그는 시장임금과 요구임금에서 잔차의 변동을 허락함으로써 Gronau의 제한적인 가정으로부터 벗어났다(Jen 1983).

Heckman의 개념적인 틀은 시장임금함수와 요구

임금함수라는 두개의 함수에 달려있다.

$$w_r = g(h, w_m, P, A, Z)$$

w_r : 요구임금, h : 노동시간, w_m : 남편의 임금

P : 재화가격, A : 가계의 자산, Z : 자녀수, 교육,

가계의 기계화

$$w_m = B(E, S)$$

w_m : 시장임금, E : 교육연수, S : 노동시장 경험 연수

결론적으로 要求賃金이란 주부들의 가사노동에서의 시간당 限界價値를 반영한 機會費用의 개념이지만 노동시장에 남아있거나 진입하기 위해 받아들이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회비용방법의 문제점들을 해결한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요구임금은 시장임금과의 비교에 의해 경제활동 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즉, 요구임금이 시장임금보다 클 때는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요구임금이 시장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경제활동에 참가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要求賃金과 經濟活動參加를 같은 차원에서 해석하기로 한다.

B. 家事勞動의 市場化

1. 가사노동의 시장화

자급자족시대에 가능했던 가정에서의 생산활동이 産業化로 인한 市場經濟가 발달함에 따라 점차 사회로 이전되고 가정에서는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시장에서 구입함으로써 消費活動에 주력하게 되었다.

역사적 흐름에 따른 가정의 변화를 살펴볼 때 문숙재(1980)는 Schweitzer가 제시한 가정경제적 기능 노동분야와 시장경제적 구분분야라는 두가지 가사노동 분야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가정의 형태가 자급자족가정, 용역가정, 시장의존가정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자급자족가정이란 욕구충족에 필요한 일체의 財貨와 用役을 가정내에 생산하고 그 범위 안에서 소비하는 가정의 형태이고, 용역가정은 가능한한 시장에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여 가정내에서 가족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노동하는 가

정이며, 시장의존가정은 욕구충족을 위한 일체의 기능과 노동을 市場에 移轉시키고 자원의 배분만을 하는 가정의 形態이다.

家内經濟時代에 가능했던 자급자족가정은 오늘날 산업화로 인한 市場經濟의 발달에 따라 점차 시장의존가정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같이 가정내에서 가사노동에 의해 행해지던 私의生産이 社會的 生産으로 代替되어 가는 과정을 家事勞動의 社會化라고 한다.

大森和子(1980 문숙제·채옥희, 1986 pp205-6)는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3가지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영리적인 사기업에 의해 개별가계에 私적으로 공급되는 형태이며, 둘째는 동일 목적을 지닌 개별가계들이 상호분업 또는 협업하여 공동으로 가사노동을 代替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통해 가정의 기능을 외부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여기에는 학교 및 병원 급식 또는 보육원 등에서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문숙제와 채옥희(1986 pp211-212)는 영리적 사회화를 사기업노동(산업노동), 공동화를 호혜적 노동, 공공적 사회화를 公的勞動으로 기술하고 있다.

女性解放論者들은 私인인 가사노동을 여성의 노동으로 고정화시키기 보다는 자본과 국가에 의한 社會化를 시행함으로써 여성이 가사노동에서 벗어나 시장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差別的 關係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私的活動에 대한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가정과 사회 양자를 통해 이중으로 착취당하는 모순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여성이 解放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J 미첼 1980 pp189-199; 水田 珠枝 1983 pp163-92; 김혜경 1985 p21, p93).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公的勞動에 의한 가사노동의 대체는 널리 보급되어 있지 못하며, 또한 본 연구에서는 資本主義 生産樣式의 발전으로 기업의 생산에 의한 가사노동의 대체를 다루므로 가사노동의 사회화라는 용어는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 된다고 보겠다.

한편, Egner와 Fischer는 경제구조의 변천에 주목하면서 가계내의 생산과정이 가정외의 공적인 영역으로 전이되어 가계에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이 시장을 통해 구입됨으로써 가사노동이 가정밖의 부문으로 이양되는 현상을 가사노동의 産業化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이기영 1987 pp23-25).

이기영(1987 p24)은 가사노동의 산업화라는 용어가 가사노동의 사회화의 형태중 기업의 생산에 의한 가사노동의 대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常用되고 있는 산업화 개념 때문에 그 의미가 혼동될 수 있으므로 자본재 상품에 의한 가사노동의 대체에 대해서 그대로 家事勞動의 商品代替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상품대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서비스에 의한 대체를 제외시킨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대사회의 가정은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재 상품이나 서비스를 市場을 통해 구입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가사노동의 시장화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家事勞動의 市場化에는 상품구입에 의해 가사노동을 대체시키는 것 외에도 가사노동을 경감시키는 가정기기를 사용하거나 고용인의 노동력으로 대체시키는 형태도 포함될 수 있다.

의·식·주등 많은 생활영역에서 家事勞動의 市場化가 진행되고 있지만 식생활영역은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다양한 냉동식품, 즉석식품(fast food) 등의 등장으로 시장화되어 가는 추세이고 아직도 대부분의 주부들이 식사준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사노동 시간에 관한 연구(Walker와 Woods 1976; Sanik 1981; 이정수 1984)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이에따라 본 연구는 가사노동의 시장화의 영역을 食生活로 한정하여 가사노동의 市場化에 따른 요구 임금의 차이를 보고자 한다.

이때 식생활을 경감시키는 가사용 내구재의 사용을 食生活의 機械化, 주부의 식생활을 대체해 주는 용역의 고용을 食生活의 用役化, 그리고 자본재 상품의 구입을 食生活의 商品化라는 용어로 표현하고자 한다.

2. 家事勞動의 市場化와 要求賃金

산업자본주의의 생산양식이 진전됨에 따라 가사노동의 시장화는 촉진되며 이러한 현상은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가정주부들에게 취업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준다. 다시말해 가정주부가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대신에 기계·용역 및 상품으로 代替시킴으로서 가사노동을 市場化시키면, 가사노동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와 질 수 있고, 그에 따라 要求賃金은 낮아지게 되며 따라서 勞動市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용이해진다.

실제로 Long은 1890년부터 1950년 사이의 미국의 센서스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난 이유로 가사노동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가정기기의 사용증가와 가사노동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회 서비스업의 발달을 들고 있으며(김수곤·심경옥 1984), Mincer(1962)도 가사노동이 계속적으로 기계화됨으로써 가사노동시간의 단축을 가져와 여성들의 요구임금이 점차 하락해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Oppenheimer(1970 김수곤·심경옥, 1984 p 47)는 가사노동이 시장화된 결과 가정주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진 결과 가사노동의 시장화가 촉진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Long, Mincer등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가사노동을 경감시켜 주는 다양한 가정용 내구재, 家事勞動을 代替시켜주는 가정용역, 편의식품 등과 가정주부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논의는 어느것이 결과이고 어느것이 원인이나 하는 논란이 있지만 상호관련 관계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장기적 시각에서 조망해 보면 산업의 발달로 가사노동의 시장화는 계속 추진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여성들이 가사노동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와 졌고, 여유있는 시간과 여력으로 소득증대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위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ecker(1976 pp89-114)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가사노동시간이 최종가계상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市場財나 서비스등과 더불어 주요한 投入要素임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가계생산 요소들의 대체정도에 따라 노동공급 결정에 유동성이 부여된다고 하였다. 그는 모든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고 전제할 때,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갖게되면 時間과 財貨間에 代替가 일어나 비싸진 시간보다 재화를 더 많이 구입하게 되며, 시간집약적인 상품(time-intensive commodities)보다는 재화집약적인 상품(goods-intensive commodities)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時間費用의 증가는 市場財의 구입을 증가시킴으로써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들여 생산하는 노동을 감소시키고 市場勞動에 참가하는 시간을 증가시키게 한다.

Ehrenberg와 Smith(1982 pp182-187)도 시장재와 가사노동 시간의 代替라는 측면에서 勞動供給 理論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들어 똑같은 효용을 줄 수 있는 음식이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가사노동 시간과 市場財의 조합비에 따라 세가지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다.

A의 경우는 가정에서 원료를 생산하여 조리하는 것으로 가사노동을 최고로 높이는 생산방법이며, C의 경우는 외식을 하는 것으로 이는 가사노동 시간을 최소로 줄이고 市場財를 최대로 소비하는 방법이다. B의 경우는 A와 C의 중간형태로 시장에서 사온 재료로 가정에서 조리하는 생산방법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효용을 주는 A, B, C를 이은 등량선 M_0 , M_1 이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것은 가사노동시간과 시장재가 음식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代替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며, 家事勞動의 市場化가 많이 이루어 질수록 경제활동 참가가 용이해 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C. 要求賃金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1. 經濟人口學的 要因

산업구조가 高度化됨에 따라 직업구조가 세분화 또는 전문화되고 그로 인해 새로운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여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경제가 성장하고 여성들의 노동생산성이 증대에 따라 그들의 시장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써 노동공급을 계속 증가시켜 왔다.

임금은 勞動力에 대한 代價로 가계가 가지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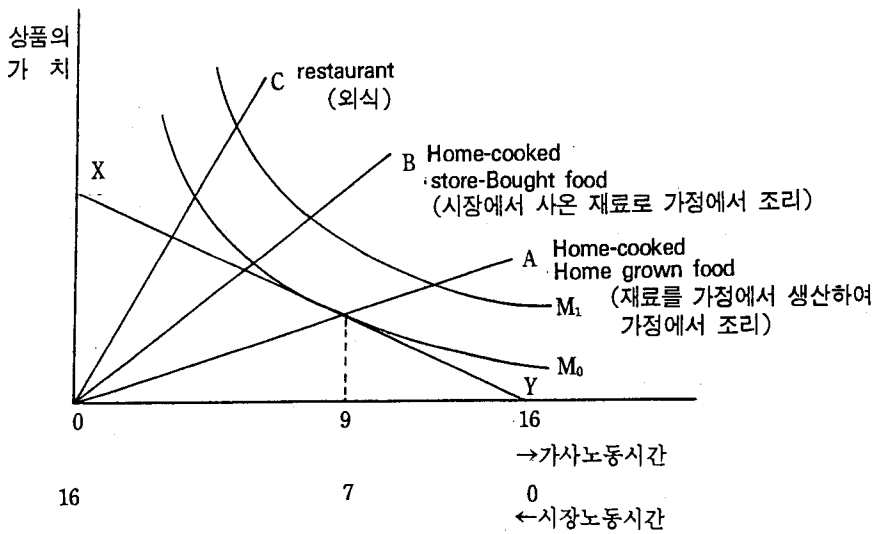


그림 1. 가정의 음식생산.

생산요소의 하나이다. 그러나 노동은 그 노동의 주체가 인간이므로 다른 생산요소와는 다르다.

노동자는 노동을 공급한 댓가로 賃金を 받음으로써 生存의 기반을 마련하며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시키게 되므로 임금은 노동공급의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 더우기 여성은 가사노동에 일차적 책임이 있고, 시장노동에는 부차적이므로 임금변화에 남성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Ben-porath 1973).

한편 남편의 소득과 가계의 자산수준은 소득효과³⁾를 나타내 주부의 취업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Mincer 1962; Heckman 1974; Gramm 1975; 김수곤 1976; 주경란 1982; 장현준 1986). 남편의 소득 및 가계의 자산이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충분하다면 그 부인들의 요구임금을 높을 것이며 따라서 경제활동참가는 감소될 것이다.

산업화는 이러한 經濟構造의 변화와 더불어 여성의 교육수준의 상승, 자녀수의 감소, 핵가족화등의 人口構造의 변화를 야기시키는데 이는 여성의 要求

賃金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으면 노동생산성이 상승하여 임금이 증가하므로 代替效果가 所得效果보다 더욱 강하게 나타나 경제활동참가와 正的關係가 나타난다(Mincer 1963; Becker 1976; Gronau 1973a, 1973b), 반면 Leibowitz(1974)는 여성의 교육수준은 경제활동참가에 정적인 효과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家計生産의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경제활동을 감소시키기도 하므로 시장임금과 요구임금에 대한 교육수준의 영향력에 따라 취업이 촉진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한다고 했다.

자녀양육은 가사노동중 여성이 주담당자가 되는 영역이므로 주부의 경제활동 참가요인으로서 중요하게 논의되어 왔다. 특히 어린자녀는 時間集約的인 재화로 주부의 機會費用을 높이므로 주부의 취업과負的關係가 성립된다(Gronau 1973a; Gramm 1975).

2. 社會文化的 要因

산업화에 수반된 경제인구학적 요인의 변화와 더

주 3: 소득효과란 임금의 상승은 소득을 증가시켜 더 많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갖게 함으로써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반면에 대체효과란 임금의 상승을 여가의 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노동자로 하여금 그의 여가를 절약하여 더 많은 노동을 공급하게 하는 효과를 말한다.

불어 사회문화적 요인의 변화는 남녀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켜 여성들의 유급노동 참여를 증대시키고 있다.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생산장소가 私的인 영역에서 公的인 영역으로 옮겨짐으로써 男女間의 勞動分業은 강화되었고 生産機能을 상실한 여성은 경제적 자립성을 박탈당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평가를 받게 되었다(Scanzoni와 Fox 1980 ; 애벌린 에드 1983 pp210-23).

Murdock을 중심으로 한 人類學者들은 수렵채집 사회에서부터 신체적힘이 우세한 남성은 집에서 멀리 떠나 가족원을 위해 먹이를 구해오는 역할을 했고, 여성은 임신, 육아의 생리적 장애로 인하여 집안에서 식사준비를 하며, 자식을 키우는 역할을 해왔으며 이러한 役割分화는 生物學的 차이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여성은 生物學的 機能으로 인해 모성역할을 포함한 가사노동의 주된 책임자가 되어 왔으며, 현대사회에서 性에 따른 노동분담으로 여성이 가정의 역할에 전념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Ann Oackley 1974a pp25~28 ; 1947b pp158~166).

경제학자들은 가사노동을 왜 여성이 전담해야 하는가라는 性別分業 現狀에 대해, 分業의 잇점을 고려하여 부부 중 누가 집에서 家事勞動에 전념하고 누가 市場勞動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그 일들을 수행하는데 따른 이득과 손실을 생각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 진다고 보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누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比較優位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家庭指向的으로 교육받으며 자녀의 社會化 과정에도 여성이 적합하므로 가사노동을 여성이 하는 것이 더 生産的이고 따라서 가정부문에서의 比較優位는 여자에게 있는 것이다. 남자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성이 여자들보다 높아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市場部門에서의 비교우위는 남자에게 있게 된다(Gronau 1973b ; Ehrenberg와 Smith 1982 pp188~90).

이 이론은 역할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文化的 要因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성역할 구분의 역기능적인 면과 여성해방

론자들에 의한 남녀평등사상의 보급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성역할 상호교환성의 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들은 가정내의 역할범위를 넘어 적합한 직업분야에 취업하려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性別 勞動分業現狀이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가정주부의 要求賃金에 미치는 요인은 성역할 태도와 남편의 가사분담의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家族社會學者들(Arnott 1972 ; Holahan와 Gilbert 1979 ; Spitze 1981)은 性役割 態度와 주부의 勞動市場 참여성향을 연결시켜 성역할 상호교환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노동시장에 많이 참여하며,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專業主婦인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성역할 개념이 진보적이고 근대적일수록 가사노동의 가치는 낮아지고 이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역할 개념이 성차별적·전통적일수록 家事勞動의 價値는 높아지게 되며, 결국 그만큼 노동시장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짐을 나타낸다고 추론할 수 있다.

Nye(1976 Sanik 1981)에 의하면 주부들은 부양 역할을 남편과 공동분담하고 남편들은 가사역할을 부인과 함께 나누는 경향이 있으며, Schwartz와 Stafford(Ghany와 Nickols, 1983)는 남성과 여성의 작업역할이 서로 접근하면서 남성이 가사노동에 더 시간을 쓰는 대신 여성은 가사노동에 시간을 덜 소비하게 되며 여성의 직업과 경력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간의 노동분담상의 변화가 主婦의 勞動市場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3. 家事勞動의 市場化 要因

산업화 이후 가정의 經濟的·社會的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家計生産은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아왔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주부들의 時間的 費用이 높아지면서 家事勞動에 시간을 적게 소비하려는 대신, 자신의 시간을 資本財나 用役으로 代替함으로써 가사노동의 市場化가 진전되고 있다. 더 비싸진 시간 대신에 商品으로 代替하며, 또 時間集約的인 상품보다는 財貨集約的인 상품으로 대체

한다. 따라서 가계에서 주부들이 가사노동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내구재 및 용역의 수요를 증가시키면 주부가 시간에 부여하는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노동의 시장화현상은 가사노동에 소비되는 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要求賃金を 낮추게 한다.

Agarwala와 Drinkwater(1972, Strober, 1977)는 1964년에서 1967년 사이에 캐나다 주부의 노동력 참여가 가정의 耐久財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으며 Nickols와 Fox (1983)는 주부의 고용은 외식과 資本財商品으로 가사노동시간을 代替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III. 研究 方法

A. 研究問題 設定 및 假說

本章에서는 理論的 개념들을 근거로 하여 주부의 要求賃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因果的인 과정을 체계화하여 研究模型을 구성하고자 한다.

산업화가 高度化됨에 따라 경제인구학적 구조 및 사회문화적 구조의 변화가 야기되고 이러한 변화는 家事勞動의 市場化에 영향을 미치며 가사노동의 시장화는 여러 변화요인과 더불어 주부의 要求賃金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형틀을 도식화하였으며(그림 2), 이 모형에 따라 내용을 단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研究問題를 設定하였다.

〈연구문제 1〉 주부의 要求賃金은 經濟人口學的變數 및 社會文化的變數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인가?

〈연구문제 2〉 주부의 要求賃金은 家事勞動의 市場化變數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3〉 要求賃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4〉 본 연구에서 제시한 經路模型이 주부의 要求賃金에 영향을 미치는 諸變數들간의 因果關係를 나타내주고 있는가?

B. 調査對象者의 一般의 特性

조사대상자의 一般的인 特性을 살펴보기 위해 단 순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주부의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37.1%로 가장 많고, 다음은 40대가 36.4%, 20대가 16.3%, 50세 이상이 10.2%의 순서이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및 초대졸업이 44.7%로 가장 많고 다음은 대학교 졸업이 35.3%, 중학교졸업 이하가 12.7%, 대학원 졸업이 7.3%로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평균교육수준 보다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의 月平均所得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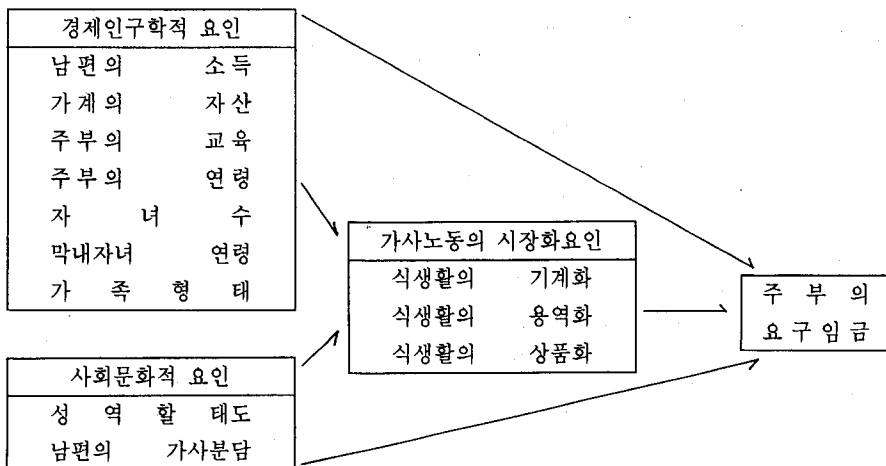


그림 2. 주부의 요구임금에 대한 개념적 모형.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집단	백분율(빈도)
연령	29세이하	16.3(132)
	30~39세	37.1(297)
	40~49세	36.4(292)
	50세이상	10.2(82)
	계	100.0(802)
교육	중졸이하	12.7(103)
	고졸~초대졸	44.7(363)
	대학교졸	35.3(287)
	대학원졸	7.3(59)
	계	100.0(812)
소득	49만원이하	12.5(98)
	50~74만원	34.6(271)
	75~99만원	36.2(283)
	100만원이상	16.7(131)
	계	100.0(783)
가족 형태	핵가족	73.4(586)
	확대가족	26.6(211)
	계	100.0(979)
취업 여부	취업	47.5(422)
	비취업	52.5(383)
	계	100.0(805)
취업 주부의 직업	전문·관리직	25.0(96)
	사무·기술직	55.9(214)
	생산·판매·서비스직	19.1(73)
	계	100.0(383)
자녀수	없음	6.5(52)
	1인	15.9(125)
	2인	45.1(359)
	3인	23.6(188)
	4인이상	8.9(71)
계	100.0(796)	
가사용 내구재 보유수	4가지이하	20.1(162)
	5가지	33.8(273)
	6가지	24.5(198)
	7가지	21.6(174)
	계	100.0(807)
가사보조자 고용 정도	고용안함	53.5(426)
	파출부고용	39.6(316)
	가정부고용	6.9(55)
	계	100.0(797)
상품이용 정도	0~10	11.6(89)
	11~20	53.4(413)
	21~30	32.5(253)
	31~40	2.3(19)
	계	100.0(774)

75~99만원이 36.2%로 가장 많고 50~74만원, 100만원이상, 49만원이하가 34.6%, 16.7%, 12.5%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조사대상자의 教育水準과 所得水準이 높은것은 표본선정시 저소득층을 제외시킨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부의 취업여부로는 非就業主婦가 54.1%, 就業主婦가 45.9%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취업주부들의 직업구성은 사무·기술직이 55.9%로 가장 많고 전문 기술직인 25.0%, 생산·판매·서비스직이 19.1%를 차지한다. 家族形態를 보면 핵가족이 73.4%, 확대가족이 26.6%로 핵가족이 확대가족의 거의 3배가 된다. 조사대상주부의 子女數를 보면 2인이 45.1%로 월등히 많고 다음이 3인, 1인으로 각각 23.6%, 15.9%이다. 7가지의 식생활 내구재중 조사대상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기기의 수는 5가지가 33.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6가지, 7가지의 순이다. 가사보조자의 고용정도를 보면 6.9%의 주부가 가장부를 고용하고 있으며 39.6%의 주부가 파출부를 53.5%의 주부가 가정부나 파출부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이용정도를 점수로 환산했을 때, 53.4%의 주부가 11점에서 20점 사이에, 32.5%의 주부가 21점에서 30점 사이에 속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一般的特性중 일부의 분포가 부분적으로 편기된 것은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의 범위를 제한(저소득층 제외)해서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IV. 分析結果 및 解釋

A. 經濟人口學的 및 社會文化的 變數와 要求賃金

主婦의 要求賃金이 경제인구학적 및 사회문화적 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남편의 소득을 4가지 下位集團으로 나누었을 때 집단간 주부의 要求賃金은 뚜렷한 有意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편의 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요구임금수준이 높은 것은 남편의 소득이 높은 부인일수록 경제적 여유로 인한 총효용의 증가로

표 2. 경제인구학적 및 사회문화적 변수에 따른 요구 임금

변수	집 단	빈도	평균(만원)
소득	49만원이하	98	24.50
	50~74만원	267	35.90
	74~99만원	281	44.01
	100만원이상	131	53.47
			F=90.431***
자산	1,000만원이하	108	25.63
	1,100~5,000만원	294	37.54
	5,100~1억미만	239	45.27
	1억이상	120	50.38
			F=64.040***
교육	중졸이하	103	27.56
	고졸~초대졸	359	36.75
	대졸이상	344	47.33
			F=82.525***
연령	29세이하	130	31.48
	30~39세	297	39.97
	40~49세	287	42.83
	50세이상	82	45.41
			F=18.065***
자녀수	1인이하	176	35.55
	2인	356	40.70
	3인이상	358	42.34
			F=9.428***
막내자녀연령	6세이하	211	39.01
	7세~12세	305	37.79
	13세~18세	214	43.67
	19세이상	78	43.97
			F=6.319***
가족형태	핵가족	582	40.17
	확대가족	209	39.41
			F=0.328***
성역할태도	전통적집단	79	42.46
	중간집단	651	39.56
	근대적집단	75	41.48
			F=1.386***
가사분담	낮은 집단	120	43.87
	중간 집단	468	41.11
	높은 집단	104	34.52
			F=10.258***

* P<.05 ** P<.01 *** P<.001

家事勞動時間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회생비용이 커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산별 요구임금수준을 살펴보면 자산이 높을수록 요구임금은 높은 경향이 뚜렷하다. 가계의 자산수준에 따라 요구임금이 변화한다는 사실은 남편의 소득에 따른 요구임금의 차이에서와 같은 논리로 이해될 수 있다.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要求賃金을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요구임금 수준이 높게 나타나 집단간 뚜렷한 점수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은 주부들의 시간은 機會費用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고,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은 남편의 所得効果로 인해 요구임금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으로도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주부의 연령별로는 $p < 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要求賃金水準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주부가 수행하는 家計生産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자녀수에 따른 요구임금수준은 子女數가 많아짐에 따라 요구임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 자녀양육은 時間集約的 勞動으로 자녀수에 따라 가사노동이 많아지며 자녀수가 많아짐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이 費用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녀를 많이 갖는 주부는 연령이 높으므로 그들이 家事勞動을 價値있는 것으로 지각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한편, Fleisher와 Rhodes(1979)는 자녀의 수가 어머니의 노동공급에 正的關係를 갖는다고 하여 위의 결과들과 상반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는데 그들은 계획되지 않은 출산은 자녀양육을 위한 경제적 필요성으로 인해 勞動供給에 正的效果를 미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구성열(1980)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자녀양육은 時間集約的인 노동일 뿐만 아니라 財貨集約的인 노동이므로 그 효과가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

문에 자녀수로 인한 금전상의 필요가 강해 要求賃金を 낮추기보다는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요구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家族形態를 핵가족과 확대가족으로 구분했을 때, 이 두 집단간에는 요구 임금수준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부가 가정내에서 시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전통적 사고에 가치를 두게 되는 확대가족인 경우 主婦의 要求賃金を 높게 할 수도 있지만 주부의 가사노동을 代替할 수 있는 人的資源이 존재하게 되므로 주부의 요구임금이 위와는 반대로 낮게 될 수도 있어 그 영향력이 서로 상쇄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性役割態도와 요구임금의 관계를 보면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인 집단이 전통적인 집단보다 要求賃金水準이 낮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다.

가사분담 점수에 따른 빈도를 고려하여 남편의 가사분담이 낮은 집단, 중간집단, 높은집단의 세 下位集團으로 구분한 후 집단별로 요구임금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본 결과 남편의 가사분담 정도가 높을수록 부인의 要求賃금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남편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家計에서는 주부들이 그만큼 가사노동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와 질 수 있으므로 요구임금은 낮아지게 되며, 따라서 經濟活動에 參加하기가 용이해진다고 볼 수 있다.

B. 家事勞動의 市場化 變數와 要求賃金

가사노동의 市場化 變數인 食生活의 機械化, 用役化, 商品化는 등간척도(interval scale)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分散分析을 하여 집단별 要求賃金水準의 차이를 보는 것 보다는 Perarson의 단순상관계수를 통해 요구임금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식생활의 기계화와 要求賃金의 관계는 $r=.087$ 로 식생활에서의 기계화가 이루어질수록 요구임금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사노동의 기계화가 주부들의 家事勞動을 경감시키므로써 요구임금을 하락시킨다는 Mincer(1962), Sanik(1981)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가정용 내구재의 保有水準이 가사노동시간을 단축시키기 보다는

家計內에서의 자금정도를 높이게 하고 또한 그런 설비를 사용하고 관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비됨으로써 오히려 家事勞動時間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식생활의 용역화와 주부의 要求賃金과의 관계는 $r=.120$ 로 식생활에서의 용역화가 진행될수록 요구임금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용역의 값이 비싸고 비싼 용역은 주부의 市場勞動의 機會費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가정부를 고용하여 가사노동을 대행시키고 자신은 市場勞動에 참여하기 보다는, 家事勞動을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食生活의 商品化의 경우는 주부의 要求賃金과 負의 相關關係를 보여서 식생활에서의 상품화가 진전될수록 요구임금수준은 낮아지고 있다($r=-.084$).

이러한 결과는 획일화된 상품을 구입하여 식생활을 충족시키는 주부보다는 가사노동의 수행을 통해 가족원의 세분화된 욕구를 충족시키는 주부가 가사노동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따라서 要求賃금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産業化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해지고 저렴해지는 消費財 특히 즉석식품, 냉동식품, 반가공식품등의 보급은 食生活의 商品化를 촉진시키고 상품화를 통한 식생활의 代替가 적극적일수록 주부의 要求賃金は 낮아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C. 要求賃金에 대한 回歸分析

본 절에서는 要求賃金에 영향을 미치는 諸變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重回歸分析을 적용시키고자 한다. 주부의 要求賃金を 종속변인으로 하고 분산분석 결과 요구임금과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였다. 回歸分析을 하기전에 변수들간의 相關關係를 살펴보면 주부의 연령과 막내자녀 연령은 높은 相關關係($r=.875$)를 나타내고 있으며 多重供線性(multicollinearity)을 피하기 위하여 막내자녀 연령을 독립변수에서 제외하였다. 그밖의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낮지않아 상호독립적인 변수임을 보여준다.

본 回歸分析에서 설정된 독립변수로는 經濟人口學的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인 남편의 소득, 가계의

표 3. 요구임금에 대한 회귀분석

	요 구 임 금	
	B	Beta
남편의 소득	1.244	0.329***
가계의 자산	0.362	0.009
교육수준	4.033	0.303***
연령	0.265	0.131**
자녀수	0.304	0.018
남편의 가사분담	-0.177	-0.069*
식생활의 기계화	-0.264	-0.028
식생활의 용역화	-0.237	-0.024
식생활의 상품화	-0.306	-0.115**
회귀상수	7.865	
R ²	0.349	

* P<.05 ** P<.01 ***P<.001

자산,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의 연령, 자녀수, 社會文化的, 변수인 남편의 가사분담 그리고 가사노동의 시장화 변수인 食生活의 用役化, 食生活의 商品化 등이다. 남편의 소득, 가계의 자산,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의 연령등의, 변수는 等間尺度로 전환시켜 적용하였다.

한편, 독립변수들간의 相互作用効果는 통계적으로 의미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회귀식에는 相互作用項이 포함되지 않았다. 위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9개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要求賃金を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설정한 후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한 표 3에 각 변수들이 요구임금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이 나타나 있다.

남편의 소득은 主婦의 要求賃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beta = .329$)로 나타나 남편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인의 要求賃金은 높아진다. 주부의 教育水準도 要求賃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beta = .303$) 교육수준은 가계생산기술에 영향을 미쳐 最終消費費品の 生産性を 증가시키므로 그만큼 家事勞動의 機會費用은 높게된다. 또한 教育水準이 증가함에 따른 家事勞動의 生産性的의 증가는 가계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므로 고정된 화폐소득수준에서 교육의 증가는

마치 화폐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家計生産活動을 변화시킨다. 교육이 家計生産活動의 生産性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이론은 우리나라에서 김기옥(1988)에 의해서도 검증된 바 있다.

또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要求賃金水準이 높아지고 있다($\beta = .131$).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家事勞動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주부가 직접 가사노동을 수행한다. 그결과 家事勞動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되고 따라서 要求賃金은 높아지게 된다.

家事勞動의 市場化 측면에서는 食生活의 商品化가 要求賃金에 영향을 미치는($\beta = -.115$) 변수로 나타났는데 상품화가 진행될수록 가사노동시간의 가치는 감소하여 요구임금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家計生産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주부들은 確立化된 상품으로 家事勞動을 대체하기 보다는 자신이 직접 가족들의 세밀한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고, 따라서 要求賃金이 높아지게 된다.

한편, 남편이 가사노동을 많이 분담할수록 부인의 要求賃金水準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beta = -.069$). 남성은 社會的 勞動, 여성은 家事勞動이라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는 남편보다는 부부간에 역할의 차이를 제거하여 남편이 실제로 家事勞動을 분담할수록 부인은 가사노동의 책임이 경감됨으로써 社會的 勞動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용이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변수들은 주부의 要求賃金を 34.9% 설명해 주고 있다.

E. 因果模型의 檢證

본 연구에서 제시한 概念的 模型에 따라 주부의 要求賃金에 영향을 미치는 諸變數들간의 因果的 關係를 보다 정밀히 검증하기 위하여 經路模型을 구성하였다. 食生活의 商品化, 주부의 要求賃金を 각각 내생변수로 하여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경로계수를 구하고 因果模型으로 재구성한 것이 그림 3이다.

중회귀분석은 經路模型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각각 2차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첫번째는 모든 관련변수를 포함시켜서 한후, 두번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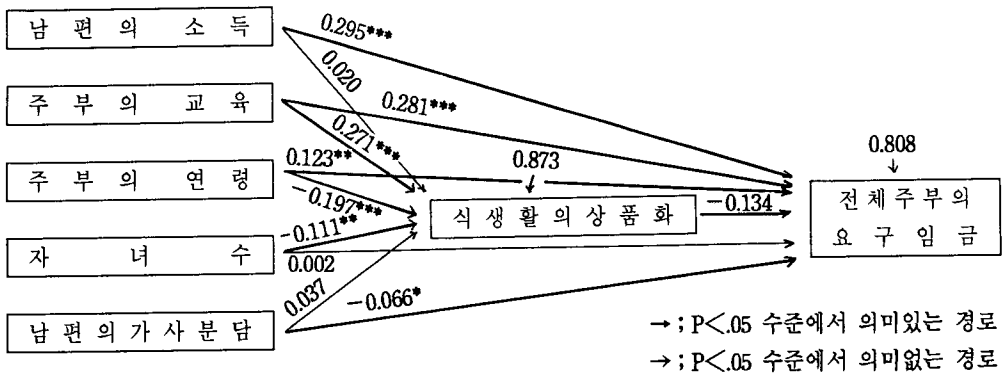


그림 3. 요구임금에 대한 경로모형.

표 4. 각 변수들이 요구임금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변수	수	인과적효과		비인과적효과	총체적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남편의 소득		0.295	0.000	0.192	0.487
주부의 교육		0.281	-0.031	0.143	0.393
주부의 연령		0.123	0.027	0.058	0.208
자녀 수		0.020	0.015	0.080	0.115
남편의 가사분담		-0.066	0.005	-0.099	-0.160

분석에서는 첫번째의 分析結果 食生活의 商品化와 要求賃金 각각에 $p < .05$ 수준 이상에서 有意的인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모두 추출하여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家族形態는 食生活의 商品化에 기여하는 정도가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假變數로 되어있어 본 경로모형에서는 제외시켰다.

매개변수인 家事勞動의 市場化요인중 食生活의 商品化는 주부의 要求賃金에 직접적인 영향($p = -0.134$)을 미치는 변수로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표 4).

이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황에서 食生活에 必要한 財貨를 供給하기 보다는 市場에서 商品化되어 있는 것을 많이 구입할수록 주부의 가정시간의 가치는 그만큼 하락한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외생변수중 남편의 소득은 주부의 要求賃金에 직접적으로 영향($p = 0.295$)을 미치고 있으며 要求賃金에 대한 남편소득의 간접효과는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주부는 家事勞動의 가치를 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家事勞動의 商品化를 통해서는 要求賃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구임금에 대한 주부 교육수준의 긍정적인 인과적효과는 주로 직접효과($P = 0.281$)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주부의 教育水準은 商品化를 매개로 하여 要求賃金에 간접적으로 기여(-0.031)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를 가짐으로써 긍정적인 직접효과를 삭감시키게 되고, 따라서 因果的인 효과가 그만큼 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의 교육수준이 食生活의 商品化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食生活의 商品化는 要求賃金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상품에 대한 지식 및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품들을 구입함으로써 가사노동시간을 절약하며 동시에 家事勞動에서의 生産性を 높일 수 있기 때문에 商品化가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商品化의 진행으로 주부의 要求賃金은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주부의 연령은 要求賃金에 직접적으로 영향($P=0.123$)을 미치고 있으며 商品化를 통해 要求賃金에 간접적으로 영향(0.027)을 미치고 있다.

자녀수는 要求賃金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정도($P=0.020$)가 약하지만 食생활의 상품화를 매개로 하여 요구임금에 간접적으로 영향(0.015)을 줌으로써 因果的으로 미치는 효과는 보다 커지게 된다(0.035).

子女數가 많아짐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계지출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장에서 商品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家計生産을 통해 食생활을 영위함으로써 商品化가 적게 이루어지고 따라서 要求賃金은 높아지게 된다. 또한 자녀수는 주부의 연령과 높은 총체적 관계($r=0.571$)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要求賃金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子女數가 많을수록 대체로 주부의 연령도 많으며 그 결과 가사노동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要求賃金이 높아지게 된다고 풀이할 수 있다.

주부의 要求賃金에 대한 남편의 가사분담의 직접 효과는 부정적($P=-0.066$)으로, 남편이 가사를 분담할수록 부인의 要求賃金은 낮아지고 있다.

상품화를 통한 간접요과는 매우 미약(0.005)하게 나타남으로써 因果的 效과의 대부분은 직접효과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V. 結論 및 提言

A. 結論

본 연구의 주요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부의 要求賃金은 남편의 소득, 가계의 자산,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의 연령, 자녀수 남편의 가사분담이 의미있는 변수로 밝혀졌다. 이는 남편의 소득, 가계의 자산,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부의 연령과 자녀수가 많을수록 要求賃金은 높아지고, 남편이 가사를 분담할수록 要求賃金은 낮아진다는 것이다.

요구임금과 有意的 關係를 갖는 家事勞動의 市場化 변수는 食生活의 機械化, 用役化, 商品化로 나타났으며 食생활의 기계화, 용역화가 이루어질수록 要求賃金은 높아지고 商品化가 이루어질수록 要求賃金은 낮아지고 있다.

둘째,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諸變數들이 주부의 要求賃金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남편의 소득,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의 연령, 남편의 가사분담, 食생활의 상품화등이 要求賃金을 결정하는 변수로 밝혀졌으며 이 변수들이 주부의 要求賃金을 34.5% 설명해 주고 있다.

셋째, 남편의 소득, 주부의 교육, 주부의 연령, 남편의 가사분담, 食생활의 상품화는 要求賃金과 직접적인 인과적 關係를 가지며,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의 연령, 자녀수등은 食생활의 상품화를 매개로 하여 要求賃金과 간접적인 인과적 關係를 갖고 있다.

이상의 分析結果를 토대로 앞으로의 가정주부의 취업변동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주부의 취업결정은 市場賃金과 要求賃金 사이의 비교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市場賃金은 물가 상승으로 약간 오른것에 불과하며 더구나 우리나라 취업여성의 市場賃金은 男女別 賃金隔差로 인해 남성임금에 비해 그 증가추세가 매우 미약하다.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1985년에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教育水準別 남성임금에 대한 여성임금 비율의 변화를 보면 1970년에 비해 1980년과 1985년에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임금비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性別 賃金隔差의 시계열 추세는 여성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가정주부의 家事勞動의 價値를 機會費用方法으로 測定한 김애실(1985), 이정우(1987) 등의 연구와 본 조사에서의 要求賃金은 우리나라 여성근로자의 教育水準別 市場賃金보다 월등히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근로자의 市場賃金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약한 실정인데 비해서 要求賃金에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性役割 態度가 진보적으로 변화되어 감

에 따라 남편의 가사분담 정도는 점차 늘어날 것이며 주부들의 時間의 價値가 높아지면서 時間集約的인 財貨를 직접 생산하는 것 보다는 편의식품으로 代替하는 食生活의 商品化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 변수들은 要求賃金を 낮추게 함으로써 취업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B. 提 言

家事勞動은 아직도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분배되고 있으며 주부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재분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남편이 가사에 노력해 줄수록 부인의 결혼생활에서의 만족이 증대되고 있으며, 가정내에서의 아버지의 役割과 態度는 가족의 심리적 분위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편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원이 家事勞動을 분담함으로써 가족원 상호간의 협동심 증진, 애정등을 도모할 수 있으며 家庭生活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동시에 家事勞動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家計生産을 증가시키면 家庭生活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다.

한편, 교육과 자녀수, 가족형태등이 食生活의 商品化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을 볼때,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출산율의 감소로 子女數가 줄어들며 家族形態도 핵가족화하는 현상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食生活에서의 商品化가 지속적으로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은 가정주부의 要求賃金を 낮추는데 기여하게 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의 기호를 정확히 반영한 식품들을 개발·보급하여 商品化를 보편화시킴으로써 주부들로 하여금 家事勞動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就業勞動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市場勞動의 가치를 부각시킴으로써 주부들로 하여금 家計生産을 억제하고 市場生産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규격화·유형화된 상품의 보급으로 生活內容이 균일화되고 가정의 고유성이나 독자성을 침해함으로써 고유한 家庭生活文化의 창조를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Heinrich(1967, 임정빈, 1986)

는 가족의 욕구가 개인적인 것일수록, 필요한 조치가 개별적일수록 가사노동을 외부에 의존할때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지적함으로써 사적인 기능의 시장의 존성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市場財로 代替가 불가능한 부분은 더욱 더 家庭生活의 내면적 가치와 生活의 質에 관련된 것이므로 그 가치는 더욱 고귀한 것이다.

따라서 家事勞動과 市場勞動은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그만 못하다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家計生産과 市場生産에 대한 개인의 상대적 선호에 달리 가치판단의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家事勞動의 市場化 變數가 要求賃金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장기적 시각에서 시계열자료로 분석한다면 이들 변수가 要求賃金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자료의 부족으로 역사적 변천과정을 조망할 수 없었으나 객관적 시장조사의 시계열분석을 통해 市場賃金이 상승했을 때 주부의 취업율이 증가했으면 그 시점의 임금을 要求賃金으로 하여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家事勞動의 市場化에 대한 模型이 精巧하지 못한데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要求賃金의 측면에서 여성취업을 다루었는데 다가적인 측면에서 여성취업을 고려한다면 주부의 취업현상에 대해 좀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경제활동인구연보, 1986.
- 2)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1960, 1970, 1980
- 3) 김수곤: 노동공급과 실업구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총서 11, 1976. 심경옥: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요인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1984
- 4) 김애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제3권 제4호, pp25-48, 1985. 노동공급에 관한 가내 성별분업. 여성과 일. 한국여성학회

- pp131-39, 1988
- 5) 김혜경 :가사노동이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 6)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 1970, 1980, 1985
 - 7) 문숙재 :문화가 가정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학가정학회지 제18권, 제3호, pp21-28, 1980
 - 8) 여성개발원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0-1, 한국여성개발원 1987
 - 9) 에벌린 리드 :여성 :카스트, 계급 혹은 억압된 성. 여성해방이론체계. 신인령 역, 서울 :폴빛사. 1983
 - 10) 이기영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1987
 - 11) 이정수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제2호, pp103-32, 1984
 - 12) 임정빈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산정을 위한 연구 II. 한국생활과학연구, 제4집, 한양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소 pp239-62, 1986
 - 13) 장현준 :경제활동참가 및 근로시간의 동시적 결정구조분석. 한국개발연구 9월 pp77-96, 1986
 - 14) J 미첼 :여성해방의 논리. 광민사 1980
 - 15) 주경란 :한국전문직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요인분석. 한국사회학 제14집 1980
 - 16) Becker, Gary S :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 17) Ben-Porath, Yoram :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and the supply of labor*. *J of Political Economy* Vol 81, pp697-704, 1973
 - 18) Ehrenberg RG & RS Smith : *Modern Labor Economics*, Illinois : Scott, Foreman and Company. 1982
 - 19) Ferber, MA & BC Birnbaum : *Household : Priceless or valueless? Review of Income & Wealth*, Dec. pp387-400, 1980
 - 20) Ferber, MA & BC Birnbaum CA Green : *Housework vs. Marketwork : Some Evidence How the Decision is Made*. *Review of Income & Wealth*, June, pp 147-59, 1983
 - 21) Firebaugh FM & RE Deacon : *Contribution of women to development of the family and the economy. The household as producer*(Linderwood College ST. Charles, Missouri), pp57-72, 1979
 - 22) Fleisher BM & GF Rhodes : *Fertility, women's wage rates and labor supply*. *AER* Vol 69, No 1, pp14-24, 1979
 - 23) Ghang, Mohamed & SY Nickols : *Husband/Wife differentials in household work time*. *HER J* Vol 12, No 2, pp158-167, 1983
 - 24) Gramm WL : *Household Utility Maximization and the Working Wife* *AER* Vol LXV, No 1, pp90-100, 1975
 - 25) Gronau, Reuben : *The effect of children on the housewife's value of time*. *JOPE* March/April, part II, ss.168-199, 1973b
 - 26) Gronau, Reuben : *The intrafamily Allocation of time : The value of the housewife's time*. *AER* Sep. pp634-51, 1973b
 - 27) Hawrylyshyn Oli : *The value of household services : A Survey of Empirical Estimates*. *The Review of I & W* Vol 22, No 2, pp101-131, 1976
 - 28) Heckman James : *Lifestyle consumption and labor Supply*. *AEJ* Vol 64, No 1, pp188-94, 1974
 - 29) Heckman James :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January. 1979
 - 30) Hefferan C : *What is homemaker's job worth? : Too many answers*. *JOHE* Fall, pp30-35, 1982
 - 31) Jen, Li-Ming Caroline : *Urba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Brazil*. p.H. D. Dissertation, New York State University at Buffalo. 1983
 - 32) Leibowitz, Arleen : *Education and Home Production*. *AER* Vol 64, No 2, pp243-50, 1974
 - 33) Mincer, Jacob :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 A Study of labor supply*. *Aspect of labor economics*, Princeton : NBER. 1962
 - 34) Nickols SY & KD Fox : *Buying Time and Saving Time : Strategies for managing Household Production*. *JOCR* Vol 10, pp197-208, 1983
 - 35) Oackley Ann : *The Sociology of housework*, New York : Random House. 1974a
 - 36) Oackley Ann : *Woman's Work : The Housewife*,

- Past and Present, London : Allen & Lane, Penguin Books. 1974b*
- 37) Sanik MM : *A division of household work : A decade comparison 1967-1977. HER J Vol 10, No 2, pp175-180, 1981*
- 38) Scanzoni J & GL Fox : *Sex role, Family and Society : The seventies and beyond. J of M & F Vol 42, No 4, 1986*
- 39) Strober MH : *Wive's labor force behavior and family consumption patterns. AER 67(Feb), pp410-17, 1977*
- 40) Strober MH & CB Weinberg : *Strategies Used by Working and Non Working Wives to reduce time Pressures. JOCR Vol 6, pp338-48, 1980*
- 41) Zick, Cathleen D & W Keith Bryant : *Alternative Strategies for Pricing Home Work time. HER J Vol 12, No 2, pp133-44, 1983*